

JTBC 주말극 '대행사' 배우 이보영 "저도 고아인처럼 잘 버텼죠"

시청률 약 3배 뛰어 16%로 중방 현실적인 직장인 사내정치 공방

배우 이보영은(43)은 JTBC 주말극 '대행사' 흥행의 일등공신이다. 전작인 송중기(38) 주연 '재벌집 막내아들'이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지만 후광은 없었다. 1회 시청률 4.8%(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출발, 약 3배 뛰어 16회 16%로 중방한 데는 이보영의 역할이 컸다. 극중 대기업 광고대행사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된 '고아인'으로 분해 카리스마를 드러냈다. 이 드라마는 직장인들의 사내 정치를 현실감있게 그려 공감을 샀는데, "진짜 직장인처럼 출근해 투투투하며 즐겁게 찍었다"고 회상했다.

"어쨌든 사회생활은 힘들지 않느냐. 신인 때는 내일 비가 와서 촬영이 없어지길 바라기도 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 보면서 '잘 버텼다. 잘 버티고 있다. 계속 잘 버티자'라고 생각했다. 아인이야 모든 사회 생활하는 분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솔직히 찍으면서 '회사 다니기 정말 힘들구나' '하루하루 전쟁터가 맞구나'라고 느꼈다. 우리 삶도 힘들지만, '조직 생활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다."

이 드라마는 앞에선 백초처럼 우아해 보이지만, 뒤에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광고대행사 프로들의 생활을 담았다. 일가에서는 '아인의 독설과 막말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인처럼 얘기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할 여지도 없지 않다. 남녀 시청자들이 보는 시각도 달랐지만, 이보영은 젠더 이슈가 생기지 않게 바꿨다. "송수환 작가님과 이창민 PD님 모두 남자다. 초반에 젠더 이슈를 걱정했지만, 작가님과 PD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면서 "한 사람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남성과 여성이 나눠서 부딪치지 않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특히 3회에서 VC그룹 상무 '최장수'(조성

하) 라인 팀장들을 팀원으로 강등할 때 아인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줬다. "이쯤되니까, 따르든가, 비키든가, 셋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경고했다. "그 신이 가장 속 시원했고 재미 있었다"고 짚었다. "솔직히 아인과 공통점이 없다. 그렇게 강박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치질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다. '진짜 이렇게 승진해야 돼?' 싶더라. 아인이야 대신 질러줘서 시청자들이 대리만족할 것 같다. 보통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느냐. 말을 못되게 하는데, 맞는 말만 해 시원했다"고 덧붙였다.

아인은 스트레스로 인해 약 없이는 살지 못했다. "나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랬다. 캐릭터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드라마 끝나고 나서도 눈물이 났다"며 "지금 첫째 딸이 여덟 살, 둘째 아들이 네 살이라서 캐릭터 감정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점점 분리의 기준이 생겼다. 극과 분리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더라.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극분을 보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기술이 늘었다"고 귀띔했다.

"아인은 졸도 없고 뺨도 없고 연도 없고 외로운 사람이다. 근데 일복이 많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더라. 조연 해주는 선배와 '한병수'(이창훈) 같은 오로판이 있다. 돈을 많이 벌면 아무도 무시하지 못 할 것 같아서 올라가고 싶어 했는데, 주변의 도움과 협업을 통해 깨달으며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다. 결국 아인이야 VC그룹에서 팀원들을 끌고 나와 독립하고, 엄마와의 상처도 치유하며 성장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약과 술도 먹지 않고 회복해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게 아닐까 싶다."

아인 패션도 시선을 끌었다. 한 치 흐트러짐도 없는 의상을 선보였는데, "스타일리스

트와 10년 넘게 함께 해 믿고 맡긴다"고 귀띔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의상이 유행할 때가 많다. 가끔 '이 옷을 입으라고?' 싶은데, 내가 모르는 분야고 그분들이 전문가 아니냐. 초반에 콘셉트 잡을 때만 이야기를 나누고, 존중해 따라가는 편이다. 마인드 때는 비싼 옷을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는 오피스 룩이라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녀 '에이핑크' 출신 손나인(29)이 연기한 VC그룹 3세 '강한나'는 호불호가 갈렸다. 재벌집 막내딸로 MZ세대를 대변했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재미있게 찍었다. 이번 작품에선 나연이가 제일 어려웠는데 스물아홉 살이고 데뷔한 지 오래돼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며 "연기할 때 MZ세대와 부딪친 적은 없다. MZ세대도 나이가 꽤 많지 않느냐. 주변에는 없어서 기사, 뉴스로만 접했을 때 '진짜 이래?'라고 생각했다"고 짚었다.

이보영은 작품 흥행 타율이 높은 편이다. '적도의 남자'(2012)와 '내 딸 서영이'(2012~2013)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3)가 연달아 흥행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2013년 배우 지성(46·곽태근)과 결혼, 딸 지유(8)와 아들 우성(4)을 낳으며 연기와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았을 터다. 이후 '퀵속말'(2017) '마더'(2018), 대행사까지 대표작을 추가했다. "망한 것도 많다"면서 "좋은 극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며 겸손해 했다.

"아이를 낳고 모든 일과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집에 들어가면 육아를 해야 했다. 오감을 넘어 육아가 발달해 예민했는데,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몰입했다. 이보영을 만든 작품은 뭐냐고? 어느 한 작품을 꼽기 애매하다. 적도의 남자는 한 신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내 딸 서영이와 너목들까지 진폭이 큰 시기였다. 그 때는 되게 잘하고 싶었다. 캐릭터를 보낼 때마다 너무 아파서 감정이 폭이 넓어졌는데, 지금은 끝나고 나서도 별로 안 슬프다.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애 바



아지" 싶다. 약간 그 시기가 그림기도 하다."

이보영은 2000년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진 출신이다. 데뷔 초 아시아나항공 광고 모델로 주목 받았고, 20년째 연기자 길을 걷고 있다. 데뷔 전 MBC 아나운서 최종 3차시험까지 통과한 일화도 유명하다. "아나운서는 안 됐을 것 같다"며 "배우가 돼 진짜 감사하다"고 했다. 그동안 드라마 출연은 활발했지만, 영화는 "나는 행복합니다"(2009) 이후 뜸한 상태다. "(시나리오) 안 들어 온 지 꽤 됐다. 초반에 영화는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이 많아서 드라마를 먼저 선택하다 보니 안 들어오게 된 것 같다"며 "로코도 안 들어온다. 부모 복 없고 사연 많은 역할이 많이 들어오

더라. 너목들이 그나마 제일 밝은 작품이다. 차기작(티빙 '하이드')도 전문적이고 사연이 많은데, 밝은 것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어렸을 때는 (연기를) 잘 못해서 도망치고 싶고, '이 일이 나와 맞나?'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다. 현상 가는 게 무섭고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빠(지성)는 신나 있더라. 극본이 뻔뻔하게 써있고, '어떻게 저러지?'라며 신기해 했다. '나도 저렇게 연기가 재미있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옆에서 관찰하며 고민을 많이 했다. 적도의 남자 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현장에 가면 좋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 '잘 버티고 있다. 앞으로도 잘 버티자' 싶다."

2주 간 130만명... '앤트맨:퀀텀매니아' 1위는 1위인데



마블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퀀텀매니아'가 개봉 2주차 주말 20만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아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다만 2주차 주말이 지나도록 150만 관객도 넘지 못해 기대 이하의 흥행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게 됐다.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개봉 8주차 주말에도 17만명을 추가, 역대 국내 개봉 일본 영화 흥행 기록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앤트맨과 와스프:퀀텀매니아'는 24~26일 24만4250명이 봐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131만2804명이다.

2주 연속 주말 흥행 1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개봉 2주차 주말 지나도록 130만명 넘겨

만 개봉 2주차에 접어들어 이후 매출액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앞으로 흥행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개봉 첫 주 주말(17~19일) 50.2%에 달했던 매출액 점유율(영화관 전체 매출 대비 특정 영화 매출액 비중)은 두 번째 주말 27.5%까지 하락했다.

'앤트맨과 와스프:퀀텀매니아'는 국내에서 만큼은 지난해 나온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MCU) 페이스4 영화들인 '블랙팬서:와칸다 포에버'(210만명) '토르:러브 앤 썬더'(271만명)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588만명) 등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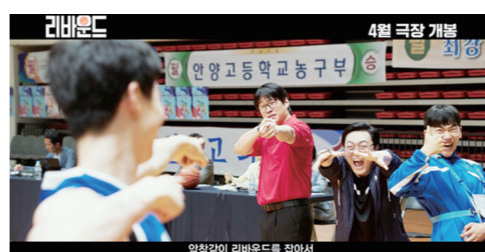
이번 작품은 '앤트맨' 시리즈 세 번째 영화다. 앤트맨 '스캇 랭'(폴 러드)과 딸 '캐시'(캐스린 뉴턴)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양자 영역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번 작품은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MCU) 페이스5 첫 번째 영화다. 앞으로 새롭게 결성될 어벤져

스가 맞서싸우게 될 슈퍼 빌런 '캉'이 처음 등장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전작에 이어 폴 러드가 앤트맨을 연기했고, 조너선 메이저스, 에반 켈린, 릴리, 캐스린 뉴턴, 미셸 파이퍼, 마이클 더글러스 등이 출연했다. 연출은 전작 두 편에 이어 페이리 리드 감독이 맡았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개봉 8주차 주말에도 17만583명을 끌어모아 누적 관객수 357만 9749명을 기록했다. 역대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기록인 '너의 이름은'(2017)의 379만명엔 약 21만명을 남겨두게 됐다. 지난달 4일 개봉 이후 두 달 간 이어지고 있는 장기 흥행 추세를 보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당분간 꾸준히 관객을 불러모을 수 있을 거로 보여 일본 영화 흥행 기록을 다시 쓸 수도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는 3위 '카운트'(14만6331명·누적 22만명), 4위 '서지'(12만9581명·누적 19만명), 5위 '마루이 비디오'(6만233명·누적 9만명) 순이었다.

고교 농구 기적... 안재홍 '리바운드' 4월 개봉



배우 안재홍이 주연하고 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영화 '리바운드'가 오는 4월 개봉한다.

바른손이엔에이는 27일 이렇게 밝히며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 작품은 2012년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 중·고교 농구대회에서 기적과도 같은 활약을 한 부산중양고 농구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영화는 한 때는

농구 명문으로 불렸지만,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부산중양고 농구부에 고교 농구 MVP 출신 코치 '강양현'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안재홍이 강양현을 맡았고, 이신영·정진운·김택·정진주·김민·안지호 등이 출연했다.

연출은 최근 '알쓸신잡' '알쓸법집'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한 장항준 감독이 맡았다. 각본은 장 감독의 아내이자 국내 최고 드라마 작가로 손꼽히는 김은희 작가, '수리남' 등을 쓴 권성희 작가가 공동 책임졌다.

'리바운드'는 4월 중 개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진스 '디토', 스포티파이 2억 스밍 돌파

자체 최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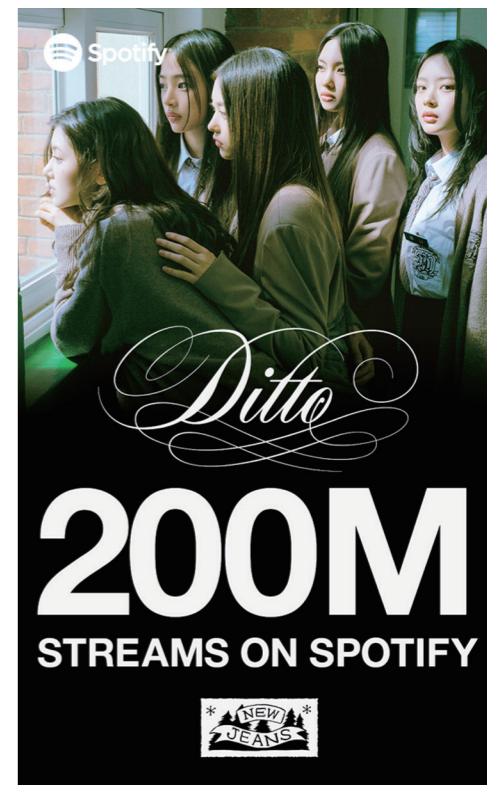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싱글 'OMG'의 수록곡 '디토(Ditto)'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재생 수 2억 회를 돌파했다.

27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뉴진스의 '디토'는 지난 25일 기준 누적 스트리밍 횟수 2억 83만9307회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2월19일 음원이 공개된 지 68일 만이다. 뉴진스 자체 최단 기록이다. 스포티파이에서 2억 회 이상 재생된 뉴진스의 노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뉴진스의 데뷔곡 '하이브 보이(Hype boy)'가 186일 차에 2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반면 '디토'는 발매 32일여 만에 1억 스트리밍 돌파, 2억 스트리밍까지 비슷한 기간(36일)이 소요됐다.

뉴진스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하면서 '디토', '하이브 보이' 외 곡들의 스트리밍 횟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입대 준비' 제이홉, 8개월 만에 깜짝 신곡... '온 더 스트리트'

국내의 솔로 싱글 내달 3일 공개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8개월 만에 깜짝 신곡을 낸다.

27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제이홉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국내의 음원사이트에 솔로 싱글 '온 더 스트리트(on the street)'를 공개한다.

제이홉이 신곡을 내는 건 지난해 7월 발매한 첫 공식 솔로 음반 '잭 인 더 박스' 이후 처음이다. 제이홉은 이 음반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과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동시 진입했다. 앨범을 발매한 그 달말에 미

국 시카고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로 나서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 '2022 MAMA 어워즈'에서 '더 모스트 파퓰러 남자 가수', 올해 초 '제37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타이 팬스 서포트 위드 바오지' 등을 받는 등 솔로로서도 굵직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이번 신곡 '온 더 스트리트'는 듣기 편한 멜로디와 따뜻한 가사가 조화를 이루는 로파이 힙합(lo-fi hip-hop) 장르다. 제이홉은 작사·작곡에 참여해 노래에 희망과 온기를 불어넣었다.

제이홉은 만남, 꿈, 추억 등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리 위'를 '온 더 스트리트'의 모티브로 삼았다. 빅히트 뮤직은 "곡명엔 거리에서 시작된 아티스트의 꿈과 함께 제이홉이 전 세계 팬들과 계속 '함께 걸어갈 길'이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